

지역 소식통

정읍시, 분질미 활용
쌀가공산업 활성화 주력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는 급변하는 농산업 정책과 농업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분질미·밀 재배 기술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분질미와 밀 재배단지, 선도 능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에는 김재 장인명농업회사법인 최남훈 대표와 국립식량과학원 김학신 밀 명예연구관이 강사로 나섰다.

강사들은 전락 작물 직불제 시행과 분질미 활용 쌀가공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주요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춰 분질미 재배 방법과 품종특성, 육묘 방법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설명했다.

또, 밀 품종별 관리 기술과 다수확 재배 방법, 품질 고급화를 위한 수확 후 관리 등을 알기 쉽게 교육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분질미 재배 방법이 매우 높은 단계의 재배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
공모사업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 민간협력 공모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부안군은 공동육아나눔터가 신규 개소되는 지역인 만큼 공간 조성 및 기자재 구입비로 최대 8,400만원 지원받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공사 중인 부안군 종합가족센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종합가족센터는 2023년 6월 준공 예정, 공동육아나눔터는 2024년 1월 개소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와 약해진 가족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필요성을 연계해 지역중심의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의 공간이다.

열린 공동체 커뮤니티로써 부모를 위한 소통과 양육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폭설 · 한파 총력 대응

22~24일 예보 따라 선제적 재난대응... 주민 불편 최소화

전북 고창군이 22~24일 예보된 폭설과 한파에 따른 선제적 재난대응에 나섰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을 기해 고창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노형수 부군수 주재 상황관리회의를 열었다.

군은 보도와 경사로, 이면도로 등 결빙이 예상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열화갑을 살포, 제설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도로순찰, 자동제설장치



가동, 상습결빙구간 제설제 살포 등 도로 결빙에 대한 적극적인 제설 상황을 유지할 예정이다.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는 "폭설과 도로

로결빙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창군은 지속되는 추위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홍보활동을 지속 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광판,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한파 피해예방 행동요령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도로결빙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행동에 유의해 줄 것과 기온 저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온유지, 동파 방지에 유의해주시길"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농업인회관 건립 본격화

고창군, 농업인 · 농업인단체 숙원사업 해결

고창군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들의 숙원사업인 '농업인회관 건립'이 본격화된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회관은 내년 초 총31억3400만원을 들여 고창읍 읍내리 515-6번지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1082㎡에 연면적 300평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한다.

농업인회관 1층에는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지역 우수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가공과 시제품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창업·가공기술 교육공간으로 활용된다. 우리쌀 이용 제과·제빵교육, 음료 및 소스개발 등 다양한 창업·가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층에는 농업인단체 사무실과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 교환을 위한 세미나실, 교육장 등 다양한 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단체와 농업인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층 공간에 휴게공간을 만든다. 농업인의 소통공간 조성, 다양한 의점수령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도업무 추진으로 농업인 편의 제공할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3층은 200여석을 갖춘 대회의실로 구상할 계획이다. 첨단 시설장비와 방송·조명시설 등을 갖춘 극장식 공간으로 구성된 각종 교육 또는 행사 진행하는 동안 편안하고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기술 정보 교류와 농가 소통공간의 장소로 활용되고 고창 농업의 중심축으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지역농업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군 농업인회관은 내년 3월까지 기본 실시계획을 마치고 4월에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일본 미나미보소시 이시이 유타카 시장 면담

심덕섭 고창군수, 교류사업 논의

일본을 방문 중인 심덕섭 고창군수가 22일 치바현 미나미보소시를 방문해 이시이 유타카 시장 등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이시이 유타카 시장의 환영사, 심덕섭 고창군수 답사 양 도시 교류 협력사업 논의, 선물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 지자체장은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교류사업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갔다.

미나미보소시는 치바현 보소반도 남쪽에 위치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여름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지로, 초봄에는 원예밭의 꽃 구경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내년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미나미보소시 측을 고창군에 초청하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많은 국가와 교

류를 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첫 만남이 미나미보소시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 운영... 공무원 산실 부상 '기대'

국내외적으로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선 8기 정읍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고,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은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 준비를 위해 수도권 등 대도시로 올라가 막대한 비용

을 지출하면서 지역 자금은 물론 인구 유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청년층이 타 시·군으로 유출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학수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마련됐다.

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공무원 시험준비생 80명과 공기업 NCS 준비생 40명 총 12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험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교육업체의 관리를 통해 공무원 직강 과정과 공무원 동영상 과정, 공기업 NCS 직강 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을 맡을 업체는 내년 1월 중 일반공개 경쟁입찰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이 지역 인재 발굴은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 인재들의 공직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준비생에게 수준 높고 효율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 취업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인구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도 방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돌봄 요원 모니터단' 간담회 가자

정읍시가 어르신 돌봄 요원의 권익 증진과 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돌봄 요원의 근무환경과 대상자의 실태 파악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8월 '돌봄 요원 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돌봄 요원 모니터단'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요원의 근무환경 실태 조사와 처우개선 사항 조사 등 돌봄 요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한다. 모니터단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15명, 생활지원사 2명, 활동지원사 2명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관련해 시는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요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21일 제1기 정읍시 돌봄 요원 모니터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모니터단과 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 모니터단 활동 보고가 진행됐으며, 근무환경 실태와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돌봄 요원을 부르는 잘못된 호칭(아줌마 등) 개선과 돌봄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이용자 교육 필요, 성희롱적인 언행에 대한 돌봄 요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급여 현실화 등이 제기됐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내년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전라북도 주관 2023년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부산면 부동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안군은 지난 2015년 하서면 등용마을, 2020년 주산면 종산마을이 선정된 것에 이어 3번째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게 되었다.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기존 대규모 시설 구축, 보급률 중심의 사업과 차별화하여 농촌 에너지 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마을 여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률 달성과 목표, 운영 규

약을 정하고 자발적인 주민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조하며 추진된다.

주산면 부동마을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고효율 LED 전등 교체, 태양광발전기 설치, 대기전력 차단, 마을회관 외벽단열로 3년간 총 30% 에너지 절감을 계획, 주민실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으로 부안군은 마을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의 수요와 전문 컨설팅을 바탕으로 태양광 등 에너지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